

미·서방의 신장 인권 공세에 맞선 환구시보 사설의 대항이데올로기 담화 전략 분석

최 태 훈

(건국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발생한 미·서방의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공세에 반응한 환구시보 사설 15편을 선별해, 중국의 대항이데올로기 구축 과정에 사용된 담화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2장에서 환구시보 사설의 '미러링'(mirroring) 전략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서방이 중국 인권침해 공세를 위해 사용하는 담화전략인 '공개적 비난하기'(naming & shaming)을 중국이 그대로 따라해 되돌려주는 미러링 전략을 채택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신장 강제노동은 미국 노예노동 및 흑인 강제 노동으로 대치된다. 둘째, 신장 위구르 제노사이드는 없고 대신 캐나다 원주민 제노사이드 사례로 미·서방의 인권 침해를 비난한다.

3장에서는 미국의 인권 공격전략을 '패러디'(parody)한 환구시보 사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인권 보호 책무 방기를 지적한다. 둘째, 중국에는 없는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생명보호 조차 못하는 미국의 인권 현황을 고발한다.

4장에서 환구시보 사설이 사용한 '책임전가'(blaming)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서방 패권주의에 대해 사설은 정신 나간 정치 엘리트의 헛소리라고 문제화하였다. 둘째, 미국의 이중잣대가 정당성이 없음을 탓한다. 셋째, 미·서방이 지정학적 사심으로 신장 인권을 정쟁의 빌미로 삼는 무책임한 국가들이라며 문제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전략을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환구시보 사설의 대항이데올로기는 미·서방 미러링 보복하기, 중국의 인권 비교우위를 드러내 미·서방 공개적 비난하기 패러디하기, 정신 나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지정학적 탐욕으로 가득한 미·서방의 인권 참상 고발로 책임전가하기로 설득력을 얻는다.

주제어 : 신장, 인권, 미러링, 공개적 비난하기, 패러디, 책임 전가하기

1. 서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 분쟁은 바이든 시대 개막 이후 ‘인권’을 이슈로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후 ‘미·서방’으로 지칭)은 신장 위구르인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강제 노동’과 ‘제노사이드’로 명명하고, 중국에 대해 공개적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이 대결 구도는 미국 對 중국에서, 미국과 서방 동맹국 對 중국과 러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중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로 국제질서 재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결의 단초가 된 신장 인권 문제를 언급한 환구시보 사설들을 비교해, 미·서방의 인권 침해 비난에 대한 중국의 대항 이데올로기의 구축 과정을 비판적 담화분석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는 정책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첫째, 3월 3일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의 8대 외교 정책 발표와 둘째, 미 상원 의원 중심의 외교위원회가 4월 22일 통과시킨 ‘전략적 경쟁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이다. 블링컨 장관은 2021년 3월 3일 바이든 행정부의 8대 외교 정책 우선 과제를 발표한다(Blinken 2021).¹⁾ 이날 연설은 미국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가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초점은 중국에 집중되었다. 특히 여덟 번째를²⁾ 살펴보면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21

1) “블링컨 장관이 제시한 8대 외교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단 및 세계 보건 안보 강화, 경제 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개선, 동맹 및 우방 재복원, 기후변화 대처, 기술 우위 확보, 중국 대응이다.” (정상원 2021)

2) And eighth, we will manage the biggest geopolitical test of the 21st centur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 But the challenge posed by China is different. China is the only country with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seriously challenge the stabl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all the rules, values, and relationships that make the world work the way we want it to, because it ultimately serves the interests and reflects the values of the American people

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 시험(the biggest geopolitical test)으로 관리할 것이다”란 표현이 나온다. 이 사안에 대하여 블링컨은 중국이 경제·외교·군사·기술적인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현재 세계 체제에 심각하게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test’가 미국에게 유례없이 어려운 ‘관리(manage)’가 필요한 ‘가장 큰 지정학 시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중국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동맹의 협력을 강조하고,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신장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홍콩 문제에 개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국제조직에서 탈퇴한 후 그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곧바로 메우며 국제사회에서 힘을 키운 것에 대해 다시 국제조직에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정 2021).

블링컨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8대 외교 정책 우선 과제’는 뒤이어 4월 22일 미국 상원 의원들로 구성된 외교위원회(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2021)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전략적 경쟁법(Act of Strategic Competition)’으로 화룡점정 수준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 법안은 ‘가장 큰 지정학 시험(the biggest geopolitical test)을 관리’하기 위해 풀어야 할 ‘시험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법안은 첫 페이지부터 “A BILL to address issue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중국과 관련된 쟁점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임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먼저 과학과 기술, 글로벌 인프라 개발, 디지털 기술과 연결, 중국의 공산당 영향력에 맞서기의 네 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영역이 미·중 싸움의 최전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법안은 더 나아가 지역별 동맹과 동반자, 가치 및 경제 국가 제도 추구, 안보의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시험문제)하고 발견한 사항을 정리한 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제시(해결책)한다. ‘전략적 경쟁법’은 중국 정부의 목표가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질

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국의 목표 달성을 저지하기 위한 ‘신 냉전 마스터 플랜’(최준영 2021)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안 전체 7개의 Title에서 Title III 우리 가치의 추구는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제노사이드(genocide)의 인권 유린에 대해 집중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의 15번째 발견은 중국의 ‘一帶一路’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적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중국은 一帶一路(BRI)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글로벌 목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국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디지털 실크로드와 건강 실크로드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一帶一路가 모든 국가에게 직접적이고 완전히 유익한 계획이라고 말한다. 결국 一帶一路는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선진화해 중국의 세계적 야망을 가장 구체적인 지리적 재현으로 만드는 것이다. 一帶一路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국영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의 정치 지렛대를 강화하며, 항구 및 철도 등 전략적 교두보에 대한 더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중국은 一帶一路를 통해 경제적 의존을 통한 정치적 복종을 추구한다.³⁾

미국은 ‘一帶一路’가 중국의 부상을 이끌고 있는 전략이며, “중국의 세계적 야망을 가장 구체적인 지리적 재현(geographical representation)

3) (15) The PRC is advancing its global objectives through a variety of avenues, including its signature initiativ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ferred to in this section as “BRI”), which is enshrined in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includes the Digital Silk Road and Health Silk Road. The PRC describes BRI as a straightforward and wholly beneficial plan for all countries. Eventually, it seeks to advance an economic system with the PRC at its center, making it the most concret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PRC’s global ambitions. BRI increases the economic influence of state-owned Chinese firms in global markets, enhances the PRC’s political leverage with government leaders around the world, and provides greater access to strategic nodes such as ports and railways. Through BRI, the PRC seeks political deference through economic dependence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으로 만드는” 위협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一帶一路’의 핵심 지역인 신장이 전략적 요충지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 미·중 국제 정치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전략적 경쟁법안의 핵심 가치인 ‘중국봉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이 지역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중국을 벗어나 전 세계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정치권력까지 얻게 되는 확장전략인 ‘一帶一路’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법안’과 전면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신장이 중요하고, 그 빌미를 잡기 위한 미국은 신장의 인권 문제를 동맹국가에 공통가치로 미·중 전장 맨 앞에 내세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지정학’은 중국의 ‘一帶一路’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8대 외교 정책 우선 과제’와 ‘전략적 경쟁법안’은 미·중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對中 견제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대응책을 제시했을까? 이에 필자는 大衆의 이념과 행동을 동일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이데올로기 전략·전술이 드러나는 환구시보 사설을 비교하여, 비판적 담화분석(이원표 2001·2015, 최윤선 2014, Fairclough & Fairclough 2012)을 통해 그들의 대응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환구시보는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취임 이후 7월 31일까지 총 200편의 사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이 가운데서 15편의 사설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신장’, ‘인권’, ‘지정학’, ‘패권’, ‘제노사이드’를 언급한 사설과, 그 내용이 중국의 대응 전략을 극명히 드러낸 사설이다. 이 시기의 대부분 사설은 미·서방 때리기에 맞춰져 있다. 미·서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환구시보의 일반적 패턴이다.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정책 방향을 선전 선동하여 중국 국민의 내부 결속을 다져 이념적으로 결집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신장 인권 관련 사설을 분

석하면 중국이 미·서방의 인권 침해 공세에 맞서 어떠한 언어·담화 전략을 통해 대항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재생산하였는지, 그 매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1은 이 논문의 핵심 분석 자료로 선정한 환구시보 사설의 배경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각 사설이 발표된 계기인 미·서방의 조치를 주요사건으로 그에 대응한 환구시보 사설의 제목을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미·서방의 신장 인권 공격 전략에 맞서 환구시보 사설이 보여준 미러링 전략은 어떻게 중국의 대항이데올로기를 구축했는가?

연구 문제2. 미·서방의 신장 인권 공격 전략에 대해 환구시보 사설이 보여준 패러디전략은 어떤 대항이데올로기를 구축했는가?

연구 문제3. 미·서방의 신장 인권 공격 전략에 대해 환구시보 사설이 보여준 책임 전가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구축했는가?

〈표 1〉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관련 주요 사건과 환구시보 사설 제목

		주요 사건	날짜	환구시보 사설 제목
1	1/27	폭스바겐, HSBC CEO 중국 옹호 對 미·동맹 신장 여론전	1/28	西方企業家們為何就中國 連連“冒泡”
2	2/16	미 텍사스주 한파로 최소 21명 사망	2/18	給美國的“民主人權自由” 做一個翻譯
3	2/22	영국 외교장관 UN 제한 없이 신장에 갈 수 있도록 허용 요구	2/22	人權博奕, 美英已在透支彈藥
4	2/24	시진핑 중국 절대 빈곤 퇴치 발언	2/25	全世界的人權觀都是從不 受窮出發的
5	2/03 -23	미국·캐나다 다수 의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주장	2/26	美國制華無招, 議員是在搞情緒發泄
6	3/09	미 국무부 장관과 대변인 신장 제노사이드 발생 인정 발언	3/10	新疆輿論戰, 讓我們創造性地與美國打
7	3/20	바이든 중·러 강경노선 공개적으로 천명	3/21	中俄坦蕩蕩, 美國和個別盟友長戚戚

		주요 사건	날짜	환구시보 사설 제목
8	3/22	미·EU·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인권 침해 규탄	3/23	這不是人權之爭，而是霸權和反霸權鬭爭
9	3/28	캐나다 CBC방송 UN 사무총장 신장 조사 수용 요구 인터뷰	3/29	新疆，西方的有罪推定式調查必須抵制
10	3/30	미 국무부 연례 국가별인권보고서 발표	3/31	華盛頓又僭越聯合國給各國人權打分
11	5/12	미·영·독 UN에서 신장 인권 회의	5/13	抹黑新疆，盜用聯合國名義也難撐場
12	5/18	미 하원의장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촉구	5/19	想拿北京冬奧會搞事？美國休要自戀
13	6/21	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홍콩인·대만인과 같은 편' 발언	6/22	中國人權有序發展，外界都省省心吧
14	6/23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 제노사이드 유해 751구 발견	6/25	加拿大的種族滅絕史決不能用道歉了之
15	7/16	WHO 중국에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하도록 촉구	7/16	世衛的溯源調查決不能向美西方政治壓力屈服

II. 미국의 중국 인권 공격전략 미러링하기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서방이 중국에 취한 전략은 ‘naming and shaming’이다(장기영 2018:75). Naming and shaming은 “실명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는 것이며, 주로 인권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의 수단과 전략”⁴⁾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권분쟁에서 ‘blaming game’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장기영 2018:78). 즉 미국이 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 중국도 인권 백서를 발표하

4)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이나 학살과 같은 국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NGO와 언론 그리고 국제단체들이 사용하는 네이밍과 웨이밍 전략은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Krain 2012).” (심현정·라광현 2018:88-89에서 재인용)

여 미국의 인권침해사례로 총기 통제 문제, 인종 갈등, 경찰폭력 같은 사안들을 언급하고 있다(장기영 2018:78).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바이든 집권 이후 미·서방과 중국 사이에 인권 문제가 격화되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간다. 예를 들어 강제노동은 노예노동으로, 신장의 제노사이드는 캐나다의 제노사이드로 똑같은 사안을 찾아내어 미러링하는 것이다. 미러링은 “타인이 ‘나’의 시선에서 특정 주제를 바라보도록 ‘나’와 ‘남’의 역할을 바꾸어 말하되, 타인을 비난하는 어휘를 덧붙이는 말하기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안재경·민영 2020:48).

1. 신장 “强迫劳动” vs. 미국 奴隸劳动 및 被迫劳动的 “黑户”

3월 29일 사설은 신장의 면화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다는 것이 거짓말이며 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계화를 통해 수확률이 이미 75%가 넘고, 세계 최고의 목화 주산지로 급부상하는데, 서방의 신장 ‘강제노동’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뒤이어 미국의 변명이 노예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핍박 받고 노동하는 “黑戶”가 있어서, 미국 자신이 제 밭이 저리니 같은 방식으로 신장에 죄를 덮어씌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신장 인권 논쟁을 미국의 인권 논쟁으로 만들어 되돌려주는 mirroring인 동시에 naming and shaming 전략인 것이다.

關於新疆棉花是通過“强迫勞動”生產的，這個彌天大謊尤其經不起實地檢驗。新疆棉花的機械化採摘率已經高達 75% 以上，那里正加速成爲全世界最先進的棉花主產區之一，哪還有“强迫勞動”的空間？美國是不是因爲自己的繁榮是靠奴隸勞動創造的，而且今天也有很多被迫勞動的“黑戶”，才能想得出來這樣抹黑新疆？(3/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黑戶”란 표현이 사용되

었다. “黑戶”의 사전적 의미는 호적자료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예문은 사실상 미국의 흑인을 지칭한다고 판단된다. 사설은 과거의 ‘노예노동’과 오늘날의 “핍박받아 노동하는 흑인(被迫勞動的 黑戶)”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문의 본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즉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노예가 있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상존하고 있음을 교묘히 부각해 되돌려줘 반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문문이 사용되었다. 환구시보는 독자에게 자명한 사실을 스스로 답변을 찾아보라는 방식으로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발표된 「完成部署薩德的韓國決不會更安全(사드배치를 완성한 한국 결코 더 안전하지 않다)」를 살펴보면 당시 언론에 주목받은 “韓國那些保守主義者是不是吃泡菜吃糊塗了?(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를 먹고 어리석어졌는가?)”란 문장이 있다. 이러한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의문문인 경우이다(최태훈 2018:224). 3월 29일 사설도 수사의문문을 사용하여 더욱 상대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효과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신장 위구르 제노사이드 vs. 캐나다 원주민 제노사이드

신장 인권과 제노사이드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미국과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Five Eyes⁵⁾ 주축국들이다. 중국이 캐나다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미·서방 세력과의 대립을 의미하게 된다.

歐洲移民通過殺戮和驅趕剝奪了原住民的土地和財富，並且用武力和強制同化建立了白人主導的秩序，[...] 原住民繼續遭受系統性

5) Five Eyes: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歧視和排斥. 加拿大這個國家是通過真正的文化和種族滅絕建立起來的, 今天的加拿大政府如果真有良知, 他們就應該給予原住民徹底的補償. [...] 就是因為這種傲慢, 特魯多政府在本國種族滅絕醜聞迭出的時候, 還覺得自己因為“處理得當”而在道德上更有底氣了, 竟然對中國新疆事務指手畫腳起來. [...] 加拿大一直都是對的, 雖有過種族滅絕但“瑕不掩瑜”, 他們從過去到現在一直牢牢站在道德高地上.(6/25)

위 예문은 캐나다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이 신장 인권과 제노사이드로 공격받은 방식 그대로를 미국과 서방 세력에 되돌려주려 하는 것이다. 위 사설 「加拿大的種族滅絕史決不能用道歉了之(캐나다의 제노사이드 역사는 결코 사과로 마무리 될 수 없다)」는 제목에서 이미 제노사이드(種族滅絶)를 언급하고 있다. 신장 제노사이드 문제를 제기 해왔던 캐나다에서, 과거 인디언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의 흔적이 뉴스로 나온 것이다. 환구시보는 제노사이드에 제노사이드로 대응하는 mirroring 방식으로 naming and sham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살육(殺戮), 내쫓고 박탈하기(驅趕剝奪), 무력과 강제동화(武力和強制同化), 조직적인 차별대우와 배척(系統性歧視和排斥) 등,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系統性歧視和排斥”은 2021년 2월 3일 BBC뉴스 ‘China’s Uyghur camp detainees allege systematic rape(중국 위구르 수용소 수감자들이 조직적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다(BBC News 2021). 즉 “systematic rape”은“系統性歧視和排斥”으로 치환 가능하며, 마치 지을 상처럼 같은 구조로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직적~’란 표현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예는 3월 31일 사설에서도 “美國系統性的種族主義(미국의 조직적 인종주의)”로 사용되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일어난다는 BBC의 보도처럼, 캐나다가 제노사이드(種族滅絶)을 통해 건설된 나라임을 분명히 밝혀 mirroring하고 있다. 둘째, 미·서방이 신장 문

제를 빌미로 중국의 도덕성을 비난한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 사설 역시 캐나다의 제노사이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자기(캐나다) 주제도 모르면서 스스로 도덕적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하게 된다(“道德上更有底氣了”, “站在道德高地上”). 이것은 중국 스스로가 제노사이드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신장 문제에 대해 ‘신장사무(新疆事務)’로 표현하고 있다. “事務”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일 혹은 한 일과 동경하는 일(一般是指被考慮的事情或所做和所憧憬的事情⁶⁾)로 풀이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잡지 ‘Foreign Affairs’의 중국어 번역이 ‘外交事務’인 점을 생각해 보면, “新疆事務”는 신장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일, 지향해 나갈 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것은 중국의 신장 문제를 평범한 “事務”로 표현하여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반면, 캐나다가 행한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여 비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그 결과 미·서방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대해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III. 미국의 중국 인권 공격전략 패러디하기

중국은 미국 인권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례는 반드시 중국이 우월하거나 중국에 없는 문제만 발굴하여 상대방의 말을 대비하고 대조해 비트는 방식으로 상대를 망신주고 혼드는 패러디(parody) 전략을 구사한다. 패러디는 “선행텍스트(precedent text)를 재구성하여 창조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구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표현 측면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내용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 경우 패러디는 일종의 인용으로 언어유희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남혜현 2013:104). 2월 18일 사설에서 ‘건강

6) <https://baike.baidu.com/item/%E4%BA%8B%E5%8A%A1/33297?fr=aladdin>

권'과 '생존권'에 기반을 둔 人權觀을 주장한 환구시보는 이에 위배되는 사례를 미국 내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철저히 부각시키고 있다.

1.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에 대한 지속적 언급

2월 18, 22, 25일 사설은 미국이 코로나19로 지금까지 50만 명이 사망하였음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내용은 비난의 대상을 미국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그 약점을 꼬집어 언급하여 미국의 창피 주는 'naming and shaming' 전략을 패러디한다.

新冠肺炎導致美國迄今死亡近50萬人, [...] 那就是資本的注意力和政府的注意力都沒有投向對人權的基本保障上, 美國的資本主義制度衍生出一套偏離了公眾切身利益的國家道義, 逐漸變得華麗而不中用.(2/18)

現在五眼聯盟圍着中國高叫人權, [...] 這是他們在配合美國對中國實施戰略性壓制和騷擾. 美國除了新冠疫情死50萬人, [...] 這個世界上但凡用腦子而不是用腳思考的人, 至少都會部分明白華盛頓和倫敦在裝腔作勢.(2/22)

另外還有一個美國新冠疫情死亡50萬人而中國却成功保護了自己人民的大背景. 這真是人類人權領域“說”與“做”前所未有的碰撞.(2/25)

위 예문의 논지는 미국의 인권이 엉망임을 직격하고 있다. 18일 사설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 보장 없이,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동떨어져 쓸모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22일은 서방이 인권을 소리 높여 말하여도, 발로 생각하는⁷⁾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과 영국의 허세를 알 수 있다고 비아냥

7) 2021년 6월 8일 사설 「經貿在用腳給地緣政治投票」를 보아도 “用腳” 발을 쓴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머리를 쓰지 않고 발을 썼다는 뜻으로, 비아냥과 비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 비난을 하고 있다. 25일은 50만 명 사망자를 낸 미국과 자국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중국, 말뿐인 미국과 행동을 보여준 중국으로 대비시켜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를 언급하는 사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在新冠疫情暴發之後的這一年多裏，美國成爲重災區，死亡人數突破了60萬，而中國用最短時間基本控制住了疫情，保護了人民的生命，[...] 這個時候美國和西方有什麼資格同中國來談人權，(6/22)
中國隻有4636人死於新冠疫情，而爲什麼美國死了60多萬人？爲什麼人口隻相當於中國一個省的歐洲發達國家死了幾萬、十幾萬人？(7/16)

위 사설들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를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해 알려주고 있다. 近50萬人(근 50만 명, 2/18)→50萬人(50만 명, 2/22, 25)→突破了60萬(60만 명 돌파, 6/22)→60多萬人(60여만 명, 7/17). 이렇게 증가된 수치를 통하여 환구시보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도 못하는 미국의 인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런 주제에 중국의 인권을 논하는 미국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를 연이어 알리고 있는 것이다. 7월 16일 사설에서는 중국의 사망자와 미국의 사망자 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나아가 유럽의 발달한 나라들 보다 중국의 사망자 수가 적음을 알려 중국의 방역 성공을 과시하고 있다. 나아가 의문문을 사용하여 미·서방의 방역 실패를 비아냥거리며 비난하고 있다. 바이든이 취임한 1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표된 환구시보 200편의 사설 가운데 “死亡”이란 어휘를 검색해 보면 전체 36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사망자 수를 언급하며 사용한 “死亡”은 3회(7/5 우루무치 테러사건 사망, 7/16 코로나19 사망, 7/21 홍수 사망)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미·서방 혹은 제3국의 코로나19 및 기타 사건·사고의 사망자 수를 언급하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약점은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며, 상대의 약점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7월 16일 사설이 그나마 4636명의 사망자 수를 솔직히 언급한 것도 60여만

명의 미국인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부각해 비난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2.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

중국이 찾아낸 미국의 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는 미국 내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격 사건이다. 인권 문제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중국은 이런 무차별적 총기 난사 사건이야말로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진정으로 보호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몰아붙인다. 바로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사례를 발굴해 공격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패러디한다.

中國還應逐漸構建一套圍繞人權問題制裁外部挑釁者，以及真正踐踏人權國家的杠杆。比如美國長期不解決惡性槍擊案頻發的問題，構成了對人權的嚴重侵犯，就應該有機構和人被制裁。這方面的工作中國有必要在摸索中逐漸推進。(2/22)

中國非常看不慣美國槍支泛濫，就在星期一美國科羅拉多州又發生導致至少10人死亡的新槍擊案，而上一一起亞特蘭大槍擊案的回響尚未平息。稱它們“槍擊案”太溫和了，它們就是一起又一起屠殺，是嚴重人權事件。按照中國保護人民安全的理念，就應立即在美國全境禁槍，對此推動不力的政治人物都應予以制裁，甚至送上法庭。(3/23)

그러면서 2월 22일 사설은 (마치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던 방식과 같이) 미국의 기구와 사람이 제재되어야만 하고, 이런 방면의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월 23일 사설에서는 거둬둔 총격 사건을 “屠殺”이라고 규정한다. 양제츠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흑인을 “屠殺”해온 것이 오래되었다고 발언하다. 환구시보는 이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여 미국 내 총격 사건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 정부의 안일한 인권 인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행정

적 조치 없이 총기에 희생되는 미국인들은 “屠殺”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중국의 이념을 내세워 미국 내에서 총기를 금지하고, 총기 금지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제재하고 법정에 보내야 한다고 비꼬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법으로 중국을 제재한 것에 대해 mirroring하여 비아냥대고 있는 것이다.

IV. 중국의 미·서방 인권 공격 책임전가 전략으로 맞서기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가 있을 때마다 취약한 인권의 모든 부분에 대해 미국 탓을 하는 blaming 전략을 개발해 맞서 왔다.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다. 즉 미·서방은 패권주의에 빠져있는 국제사회의 악마와 같은 존재라고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문제있다. 문제화하기), 자기도 잘못하면서 도덕적 우월성으로 남에게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비합리적 존재(이중잣대), 그리고 신장 인권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방이 신장 문제를 만들고 동맹의 공동 제재를 이끄는 것은 그들의 지정학적 사심(즉 중국 팽창 전략 저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정학 탓을 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인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서방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 이를 문제시하는게 바로 문제이며, 공평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잣대를 마음대로 바꾸는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탐욕으로 가득한 미·서방이 패권을 형성하여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그들의 지정학적 사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개의 담화 전략을 합하면 중국 인권을 둘러싼 소음들과 제재들은 모두 미·서방의 책임이라고 공을 떠넘기는 것이다.

1. 패권주의 미·서방 문제화하기

문제화하기(problematization)는 “어떤 사회·정치적 상황이나 사건을 지적하여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가능한 결과 등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표 2015:298). 아래 내용은 3월 21일 「中俄坦蕩蕩, 美國和個別盟友長戚戚」의 도입 부분이다.

美國近來的表現傲慢且囂張, 對中俄兩大國同時公開施壓, 拜登總統日前面對電視鏡頭直接表示他認同“普京是殺手”. 對中國, 華盛頓則反復用“21世紀最大地緣政治考驗”來定義, 給中國新疆貼“種族滅絕”標籤, 叫囂要拉盟友聯合對付中國. 華盛頓的攻擊性政策進一步加劇了全球的地緣政治震蕩感.(3/21)

환구시보는 ‘미국이 내뱉은 말’을 ‘문제화’한다. 최근에 중·러를 상대로 동시에 공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오만하고 방자하다(傲慢且囂張)는 발언을 한다. “傲慢”을 뛰어넘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오만한 것이 “囂張(=放肆傲慢)”이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욕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극도의 비난이며, 시작부터 미국의 발언을 문제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은 왜 미국이 오만방자한지에 대해, 러시아의 사례를 든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普京是殺手(푸틴은 살인자)”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일국의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면, 미국이 오만방자하다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를 통해 자신이 뒤에 펼칠 주장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복해서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21世紀最大地緣政治考驗)”이라 정의하여, 신장에 “제노사이드(種族滅絕)”란 꼬리표를 붙이고, 동맹을 멋대로 불러들여 중국에 대적하게 했다고 밝힌다. 여기서 “푸틴은 살인자”, “중국 은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 “제노사이드” 등은 사회 정치적 상황이나 사건을 미국이 문제화하여 지적한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은 역으

로 미국의 발언을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공격하는 ‘문제가 있는 말’로 ‘문제화’한다. 그 결과 사설은 워싱턴의 이와 같은 문제 있는 말들이 공격적인 정책으로까지 나아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파동을 한 층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상대의 문제 화하기 발언을 반박해 자신들의 ‘문제화하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문제화하기의 또 다른 예는 5월 13일 사설 「抹黑新疆, 盜用聯合國名義也難撐場」에서도 보인다.

一次導致了滑稽的場景：美國這個近年來在全球殺害穆斯林最多的國家拽上一些盟友聲稱保護新疆穆斯林的人權，[...] 聯合國人權高專也沒有現身。[...] 這顯然是一個盜用聯合國場地的冒牌會議，[...] 美國在大中東打的反恐戰爭則在穆斯林民間招來普遍反感，美國和西方死死咬住新疆穆斯林的“人權”，這首先對全球穆斯林來說就極不可信。[...] 這兩年美國和盟國搞出不止一次針對“新疆人權”的聯署操作，[...] 用那個“一小撮”來冒充國際社會，現在又要冒充聯合國，華盛頓的臉面越來越撐不住了。(5/13)

사설은 시작부터 “滑稽(사람 웃기는: 引人發笑)”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비아냥대듯 정치적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시작한다. 무슬림을 가장 많이 살해한 미국이 무슬림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소리내고 있는 것이나, UN의 인권전문가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열린 회의는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UN의 장소만 빌린 가짜(冒牌) 회의라며 문제화한다. 여기서 사용된 “冒牌”는 진짜 상품의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가짜 상표를 지칭하는 말로 한국어로 ‘짝퉁’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설의 제목에서 밝혔듯이 “UN의 명의를 도용했다(盜用聯合國名義)”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미국과 서방이 UN의 브랜드를 사칭한 회의를 열었으므로 “冒牌”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비아냥은 다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 일으킨 전쟁이 무슬림 민간에 반감을 불러왔고, 미국과 서방이 무슬림의 “인권”을 죽도록 물고

늘어지는데(死死咬住), 이것은 전 세계 무슬림 입장에서는 미덥지 못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死死咬住”는 상대를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이다. 일단 “물다(咬)”는 개를 연상시키고, ‘죽도록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미친개’의 수준으로 대상을 문제화하게 된다. 사설은 미국과 그 동맹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은 신장 인권에 대한 “연서 조작(聯署操作)”을 했다고 말한다. 연서(聯署)는 공동 서명으로, 문서 서명조차 조작했다고 문제화하고 있다.

끝으로 “一小撮”란 표현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한 줌’의 의미도 있지만, 문화혁명 시기의 정치 용어로 반동의 소수파를 지칭하고 있다(文革時期政治用語, 指反動的少數派). “一小撮”는 “大多數”, “人民”의 상대 개념인 것이다.⁸⁾ 따라서 사설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반동의 소수파’로 규정함과 동시에 인민의 대적점에 있는 대상으로 문제화하고 있다. 바로 이런 소수의 반동분자들이 국제사회와 UN을 사칭(冒充國際社會, 冒充聯合國)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도용(盜用), 짝퉁(冒牌), 조작(操作), 사칭(冒充)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UN인권 관련 회의는 사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死死咬住”로 상대를 비하하고 “一小撮”로 미국과 그 동맹을 인민의 적(반동)으로 만들어 내 부 결속을 공고히 하고, 반동 척결 투쟁으로 민중이 나가 싸우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미국의 이중잣대 정당성 없음 타하기

3월 23일과 3월 31일 사설은 미국이 두 개의 잣대로 유불리에 따라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평가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당성이 없음을 타하고 있다.

8) <https://baike.baidu.com/item/%E4%B8%80%E5%B0%8F%E6%92%AE/7283219?fr=aladdin>

雙重標準近來出現了前所未有的猖狂. [...] 美國嚴厲反對其他國家對它搞任何滲透, 反對干預它的選舉, 但是美國和它的盟友們在干預多少國家的政治事務, 并因此搞亂了多少國家, 導致了多少人間悲劇呢? 如果所有國家都認為有權力要求別的國家如何做, 并且用力量來支持這樣的主張, 這個世界還會有秩序嗎?(3/23)

人權是美國自我感覺最好的議題, 但也越來越成了它在聚光燈下的雙重標準表演. 美國“系統性的種族主義”就可以眨中帶褒的說, 中國在新疆的去極端化工作則被惡毒冠以“種族滅絕和反人類罪”的惊天罪名. 美方之前指控盟友沙特以毀尸的殘忍方式殺害記者卡舒吉, 後指控俄羅斯迫害納瓦爾尼, 但華盛頓制造的指控聲勢和採取的懲罰行動却截然不同.(3/31)

3월 23일 「這不是人權之爭, 而是霸權和反霸權鬭爭」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장을 두고 벌어지는 미·서방 對 중국의 싸움 양상은 인권 다툼이 아니고, 패권을 지향하는 미·서방과 이에 대항하는 반패권 중국의 투쟁이라고 말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환구시보는 미국이 ‘이중 잣대(雙重標準)’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침투하거나 선거에 간섭하는 것을 미국이 철저히 반대하는 반면, 미국과 그 동맹은 수많은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고 이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실은 말한다. 중국이 펼치는 ‘이중 잣대(雙重標準)’ 이데올로기는 쉽게 이야기하여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되’라는 불합리한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꼬집어 비난하는 것이다.

3월 31일 사실은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두 가지 들고 있다. 첫째, 미국이 말하기 좋아하는 인권은 가면 갈수록 이중잣대가 잘 드러나 보이는 쇼(表演)가 되어버렸다고 포문을 연다. 미국의 ‘조직적인 인종주의(2.2 ‘系統性’ 참조)’는 비난받는 가운데서도 칭찬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신장에서의 중국의 극단적인 작업은 “제노사이드와 반인륜적 범 죄”라는 놀라운 죄명으로 악독하게 이름 붙여졌다는 것이다. 둘째, 이번에는 슬쩍 러시아를 끌어들여(김선재·김태호 2020:55) 새로운 ‘이중잣

대(雙重標準)’의 예를 제시한다. 미국의 동맹 사우디가 기자 카슈끄지를 살해한 것과 러시아가 나발리를 박해한 것, 이 두 가지 반인륜적 사안에 대하여 미국이 취한 비난 정도와 징벌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인민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왕이웨이는 BEIJING REVIEW 사설 (Time to Abandon Cultural Chauvinism)에서 “Double standards(雙重標準)”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Such double standards display belligerence, hypocrisy, selfishness and self-righteousness. Although many European countries embrace diversity among themselves, they aim to promote their ideology and culture beyond the continent. Some Western countries perceive developing ones with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o be inferior or opponents. Once the assimilation fails, the West claiming “moral superiority” often attempts to demonize the latter.

왕 교수는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이중 잣대(雙重標準)’ 전략이 호전적이고, 위선적이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게 자신들의 기준을 강요하다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며 중국을 악마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악마화의 사례는 위 3월 31일 사설에 보이는 “제노사이드와 반인륜적 범죄라는 놀라운 죄명으로 악독하게 이름 붙여졌다(被惡毒冠以種族滅絕和反人類罪的惊天罪名)”라는 문구로 대변된다. 사실 이중잣대는 미국의 약점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naming and shaming(공개적 비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펼치는 대항이데올로기 가운데 가장 타당하고 수궁할 수 있는 논리로 판단된다.

3. 패권주의 미·서방 지정학 사심 탓하기

‘美·西方的 도전과 중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흔히 발견되는 또 다른

중국의 전략은 ‘책임 전가하기(blaming)’이다(이원표 2015:300). 예를 들어 이것은 중국 신장 인권 문제와 같은 사안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공격의 대상이 된 미·서방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비난받는 경우를 말한다. 신장 문제와 관련된 환구시보의 일관된 어조는 신장 인권 유린은 거짓이고,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쟁점이 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 국가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책임 전가 전략은 비난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의 어휘를 사용한 명명하기(naming)과 창피주기(shaming)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미·서방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으로 맞선다는 것이 차이점이 된다. 아래는 미국의 공개적 비난하기에 맞선 중국의 책임 떠넘기기 언어 전략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문들이다.

少數西方的意識形態簡直就像野蠻人一樣自我放縱，他們完全不配身居現代文明的頂端。[...] 一些英國議員提出要匯豐撤出香港，他們完全是一群愚蠢而狂妄的門外漢。[...] 地緣政治狂熱隻屬於少數精英，這種狂熱雖然能在輿論場翻手為雲覆手為雨(1/28).

如果他們真對北京冬奧會踢館，這將向世界展現他們追求邪惡地緣政治目的的喪心病狂(2/26)

華盛頓的自私自利決定了它是地緣政治狂，而非人權因地制宜的眞誠播種者。(5/13)

‘이데올로기광(意識形態狂)’, ‘어리석고 방자한 문외한(愚蠢而狂妄的門外漢)’, ‘지정학 광신(地緣政治狂熱)’, ‘사악한 지정학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성 잃은 정신병(邪惡地緣政治目的的喪心病狂)’, ‘지정학광(地緣政治狂)’은 모두 중국의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 또는 그들의 행동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일관된 명명하기(naming) 전략을 사용한 표현들이다. 여기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가 ‘狂’자이다. 『說文解字』를 살펴보면 “狂, 狢犬也(미친개).”라고 풀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死死咬住(죽도록 물고 늘어지다)”가 미친

개를 연상시키듯이, ‘狂’자 역시 미친개를 머리에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狂’자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狂’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실은 미국과 서방이 미쳐도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독자에게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자신들의 도전 상대들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부각시키는 ‘비정상화’를 강조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 혹은 공신력을 끌어내리는 언어 전술이다. 그 결과 이들의 행동은 ‘자기방종’, ‘현대문명의 정점에 있기에 어울리지 않음’, ‘사리사욕’ ‘성실한 인권의 파종자가 아님’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게 된다.

나아가 위의 사실들은 설득력을 더하는 장치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것은 바로 ‘지정학(地緣政治)’란 표현이다. 이것은 신장 문제를 지정학(地緣政治)으로 인식하는 미국과 서방에게, 지정학 광신(地緣政治狂熱), ‘사악한 지정학적 목적(邪惡地緣政治目)’, ‘지정학광(地緣政治狂)’ 등으로 비난하여, 그 탓을 되돌려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전략이다. 지정학 탓하기는 다른 사실에서도 보인다. 중국은 미·서방이 중국 인권 문제를 탓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인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미·서방의 지정학적 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아래는 3월 3일 블링컨이 바이든 정부 8대 외교정책 우선 과제를 발표하기 전과 후에 따라 환구시보의 지정학 탓하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這場圍繞人權的博奕在本質上已經高度地緣政治化(2/22)

And eighth, we will manage the biggest geopolitical test of the 21st century: our relationship with China.(3/3)

五眼聯盟揪新疆問題, 有地緣政治的強烈原因.(3/10)

2월 22일 사실은 미·영과 인권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게임으로 규정하고, 이 게임은 본질적으로 지정학화 되었다고 말한다. 이때까지는 ‘게임(博奕)’, ‘본질적으로(本質上)’, ‘지정학화(地緣政治化)’ 등으로 지정학 탓하기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3월 3일 블링컨이

바이든 정부 8대 외교 정책 우선 과제에서 중국 문제가 미국이 관리해야 할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발언한 후, 3월 10일 사실은 지정학 탓하기가 한 층 강화된다. 예문은 Five Eyes가 신장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지정학적 강한 원인(強烈原因)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아래 3월 23일 사실을 살펴보겠다.

這是決不可以接受的，這場“人權鬭爭”的實質是霸權和反霸權的鬭爭，是追求發展人權之實還是出于地緣政治目的的玩人權之虛(3/23)

위 예문은 3월 22일 미·서방의 신장 공동 대응 제재를 비난하며 중국의 대응 이데올로기 전환을 알리는 변곡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這(이것)”은 앞 문단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이 하나의 가치관을 표준으로 인권과 민주를 규정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국 중심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뜻한다(美國和幾個主要盟友要以一種價值觀爲標準來界定人權和民主，并且以此爲杠杆，鞏固以美國爲中心的西方霸權).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권에서 패권으로 투쟁의 프레임 전환을 알린다. 여기서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는 바로 ‘지정학적 목적에서 출발해서 인권의 허구를 가지고 놀다(出于地緣政治目的的玩人權之虛)’로 규정된다. ‘지정학적 목적’은 미국의 ‘패권주의의 속마음’을 뜻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신장 인권 문제를 ‘가짜’(人權之虛)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인권 문제를 비난한 미·서방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되돌려주는 책임 전가의 방식이다. 즉 환구시보는 미·서방이 對중국 공동 제재를 통해 있지도 않은 신장 인권 문제를 가짜로 만들어 중국을 탄압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원인은 지정학적 목적에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國別人權報告如果要做，也應是聯合國的事，華盛頓越俎代庖，主要是出于它的地緣政治私利(3/31)

美國嚴重玷污了“人權”這個字眼，他們把這個概念生生變成了

不食人間烟火,完全服務于地緣政治的某種裝腔作勢.(5/19)

3월 31일 사설은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자격이 있는 곳은 UN인데, 일개 국가인 미국이 각국 인권 순위를 매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은 ‘체계적인 인종주의(系統性的種族主義)’ 국가인 주제에 신장에 ‘제노사이드와 반인륜적 죄(種族滅絶和反人類罪)’는 죄명을 씌우는 ‘이중잣대(雙重標準)’를 들이대기 때문에 세계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는 역시 지정학적 사익(地緣政治私利)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한다.

5월 19일 사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해 보이콧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펠로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국가 원수가 참여하면 앞으로 이들이 도덕적 권위를 갖고 세계 무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如果國家元首坐到北京冬奧會的座位上,今後還有什麼道德權威就世界任何地方的人權問題發言). 이에 대해 사설은 미국은 인종 문제, 총기 난사, 코로나 방역 실패, 이스라엘 가자 지구 폭격 문제 등에 대한 인권 실패 국가로서 ‘도덕적 권위(道德權威)’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또한 사설은 미국은 인권 개념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국가로,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밥도 안 먹고(생존권을 무시한) 지정학에 완전히 헌신하는 모종의 허세로 변질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두 예문은 ‘지정학 사익’을 취하고 ‘지정학의 허세’를 부리는 주체가 명백히 미국이라고 밝히며, 그 책임을 미국에 떠넘긴다. 인권과 관련해 환구시보 사설이 전파하고자 하는 대응이데올로기는 인권은 기본권/생존권이 정치적 권리가 아니므로 중국은 인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사설은 미국이 이를 무기로 중국을 공격하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비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서방의 ‘지정학’ 탓으로 그 책임이 이동되어, 중국에게는 아

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키는데 설득력을 얻게 된다.

V. 결론

본 논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발생한 미·서방의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를 근거로 촉발된 중국 때리기와 관련된 환구시보 사설 15편을 선별해, 중국의 대항이데올로기 구축 과정에 사용된 담화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미·서방의 신장 인권 공세에 맞선 중국의 미러링 전략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서방이 중국 인권 침해 공세를 펴는 담화전략인 공격적 비난하기(naming & shaming)을 중국이 그대로 따라 해서 돌려주는 방식인 mirroring 전략을 채택함을 알 수 있었다.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 비난에 대하여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현재 미국 흑인 노예노동 실태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고, 신장위구르 제노사이드 비난과 제재에 대해 캐나다 원주민 제노사이드 사례로 반격한다. 특히 캐나다를 비난할 때 사용한 언어 전략은 신장 제노사이드를 전 세계적인 쟁점으로 보도한 BBC의 어휘와 문장을 mirroring하는 방식을 택한다. “systematic rape”을 “系統性歧視和排斥”으로 치환해보면 마치 거울상처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서방의 비난에 대해, 환구시보는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어휘의 치환을 통한 미러링 전략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이에는 이, 즉 ‘상대편이 나에게 한 행동을 똑같이 갚아준다는 의미’의 미러링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는 3장의 패러디 사례로 연결된다.

3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인권 공격전략을 중국이 패러디(parody)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설은 중국이 미국과의 비교우위에 있거나, 혹은 문제가 없는 인권 관련 사례를 찾아 미국을 비난한다. 우선 중국의 비교우

위 사례인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와 사망자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비아냥대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자국민의 생명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미국은 다른 나라 인권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인권 문제에서 가장 큰 골치 덩어리 중 하나인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에 개입해 점차 비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인다. 사실은 미국 정부의 안일한 인권 인식으로 말미암아 행정적 조치 없이 총기에 미국인들이 “屠殺”되었다고 비난한다. 나아가 총기 금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제재하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미국이 자국법으로 중국 제재를 가한 것과 같이 패러디하여 비난한다. 이 두 사례는 시쳇말로 중국이 미국에게 ‘남참견 말고 너나 똑바로 잘해’라고 비아냥대는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미·서방 인권공격에 대하여 책임 전가 전략으로 맞선 사례를 살펴보았다. 책임 전가는 미국이 사용한 표현에서 시작된다. ‘푸틴은 살인자’, ‘중국은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 ‘신장에서 제노사이드 발생’과 같은 표현이 문제 있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오만하고 방자(傲慢且囂張)하다고 비난한다. 더 나아가 부정적이고 욕에 가까운 수위 높은 어휘들을 사용하여 미·서방 중심으로 신장 인권 관련 회의를 연 UN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아냥댄다. 예를 들어 도용(盜用), 짝퉁(冒牌), 연서 조작(聯署操作), 소수파 반동분자(一小撮)가 대표적이다. 나아가 소수 미·서방 국가들이 UN을 ‘사칭(冒充)’한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 어휘를 사용하여 신장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인 UN 인권 회의는 ‘사기’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미·서방이 무슬림 인권을 죽도록 물고 늘어진다(死死咬住)고 표현한다. 이것은 UN 인권위원회에 참여한 소수 미·서방을 죽도록 물고 늘어지는 ‘미친개’의 수준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다.

또한 미국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인 인종차별 문제를 인권과 연결시킨다. 미국은 “조직적 인종차별(系統性的種族主義)”이 있는 나라임을 끄집어 내어, 자신들 나라의 인권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 수준에 남의 나라 인권 문제를 비난하고 제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미에서

‘이중 잣대(雙重標準)’라고 비판한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반인륜 사례인 사우디가 기자 카슈끄지를 살해한 것과 러시아가 나발리를 박해한 것에 대해 미국은 또한 이중잣대를 들이대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패권주의 미·서방의 지정학적 사심을 짫한다. 책임전가, 탓하기 전략은 공개적 비난하기(naming and shaming) 언어 전술에 책임을 떠넘기는(blaming) 전략을 더한 것이다. 책임전가 전략은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언어 전략이다. 상대편 탓을 하기 위해 환구시보는 우선 상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명명(naming)한다. 이데올로기광(意識形態狂), ‘방자한 문외한(狂妄的門外漢)’, ‘지정학 광신(地緣政治狂熱)’, ‘사악한 지정학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성 잃은 정신병(邪惡地緣政治目的的喪心病狂)’, ‘지정학광(地緣政治狂)’ 등 지나칠 정도로 ‘狂’자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상대를 제정신이 아닌 존재로 만들고, 따라서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도록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명명하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 비정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서방이 신장위구르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가 된다.

나아가 환구시보는 ‘지정학(地緣政治)’란 표현을 사용할 때에, 미·서방이 일으키는 지정학적 모든 문제에 책임을 미·서방에게 떠넘겨 상대를 탓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것은 블링컨이 발언한 “the biggest geopolitical test of the 21st century”에 대한 미러링이다. 블링컨의 발언은 중국의 야욕을 경계한 표현임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중국의 세력 확장전략인 ‘一帶一路’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점을 적극적으로 반격하여 지정학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반대로 냉전시대의 패권주의를 다시 발동시키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환구시보의 미·서방 책임전가 유형은 세 가지이

다. 첫째, 미국의 ‘지정학적 목적’은 패권을 지키려는 속마음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장 인권 문제를 ‘가짜’로 조작했다고 비난한다. 둘째, 미국이 UN을 건너뛰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는 인권을 자기의 기준대로 적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지정학적 사익’ 때문이다. 셋째, 미국이 말하는 인권은 인민의 생존권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지정학에 전념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정치놀이, 빛 좋은 개살구이다. 따라서 사설은 반복적으로 사용된 지정학을 패권과 동일어로 해석되도록 유도한다.

본 논문은 중국이 미·서방의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여론전과 제재에 맞선 중국의 인권·패권 투쟁 담화 전략 분석에 집중했다. 연구에서 밝힌 중국의 대항이데올로기는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의 이념과 정책에 대해 앞서서 권위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선전 선동하는 언론 기구이다. 환구시보의 존재 이유는 권위주의 정권의 비전, 도전, 및 과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중국 공산당의 안전한 체제 유지에 복무하는 데 있다. 따라서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의 입으로 최전선에서 대중을 설득하고 이데올로기 공작을 수행하는 준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 정부를 지원 사격하는 환구시보의 이데올로기 ‘조작과 왜곡’의 전체 작동 메카니즘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7월 31일까지 약 반년 동안 발간된 환구시보 사설 중에서 ‘一帶一路’와 ‘地緣政治(지정학)’이 같이 사용된 사설, 중국의 야심과 중국의 야심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설을 찾을 수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발간된 환구시보 사설 200편 가운데 ‘一帶一路’는 단지 5편의 사설에서 8회 언급됨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一帶一路’가 사용된 환구시보의 사설들을 고찰하여, 중국 정부가 ‘一帶一路’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했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텍스트의 상호관련성을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의 대결은 그 끝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지구전·장기전을 통해 절대 패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SNS에는 중국의 GDP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은 날까지 양국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문제는 그 상황까지 가는 가운데, 한국이 이겨내야 할 고난의 파장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필자의 연구가 날이 갈수록 깊어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미래의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선재·김태호(2020), 「국제기구를 통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新亞細亞』 27-4, 신아시아연구소, 45-67.
- 남혜현(2013), 「언어유희로서 패러디와 소통전략: 현대 러시아 미디어에서 선행텍스트의 인용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25, 외국학연구소, 103-126.
- 심현정·라광현(2018), 「국내 미투운동의 형사사법학적 함의」, 『한국경찰학회보』 20-4, 한국경찰학회, 85-108.
- 안재경·민영(2020), 「소통 전략으로서 미러링의 효과: 관점 수용과 의견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보』 64-5, 한국언론학회, 46-80.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원표(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장기영(2018), 「‘국내청중’ 대(對) ‘국외청중’: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중 외교 갈등과 전략」, 『아시아리뷰』 7-2, 아시아연구소, 63-86.
- 최태훈(2018), 「사드관련 환구시보 사설 비판적 담화분석-“完成部署薩德的韓國決不會更安全”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언어학회』, 『중국언어연구』 74, 한국중국언어학회, 215-244.
-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Isabela & Fairclough, Norman/김현강·신유리 역(2012/2015), 『정치담화분석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박이정.

인터넷 자료

- 정상원(2021.3.4.),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 시험대는 중국”... 美 외교 정책 기조 드러났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 News/Read/A2021030413080003602 (검색일: 2021.8.7.)
- 최수정(2021.3.4.), 「“中, 국제사회 심각한 위협·21세기 최대 지정학 시험”」,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0402251783872> (검색일: 2021.8.7.)
- 최준영(2021.4.29.), 「美의회 초당적 신냉전 마스터플랜… ‘中 압박’ 더 강력한 법안 발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30_027003 (검색일: 2021.8.8.)
- BBC News(2021.2.3.), “China’s Uyghur camp detainees allege systematic rape,” <https://www.youtube.com/watch?v=e6bPGI10Cts> (검색일: 2021.8.1.)
- Blinken, Antony, J.(2021.3.3.), “A foreign policy for the American People,”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a-foreign-policy-for-the-american-people/> (검색일: 2021.7.20.)
-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2021),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1169> (검색일: 2021.7.15.)
- Wang Yiwei(2021.7.15.), “Time to Abandon Cultural Chauvinism,” BEIJING REVIEW. https://www.bjreview.com/Opinion/Voice/202107/t20210712_800252782.html (검색일: 2021.7.25.)

❖ ABSTRACT

A Study of Discourse Strategies of Counter-Ideology Construction by *Global Times* Editorials in Response to the U.S.-Western Actions on Human Rights Abuses of Uyghurs in Xinjiang

Choi, Tae-Hoon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selected 15 *Global Times* editorials in response to the U.S.-Western "Xinjiang Uighur Human Rights Violation" offensive that took place after President Biden took power and analyzed the discourse strategies used in the processes of Chinese counter-ideology construction.

Chapter 2 examines the cases of mirroring strategies used in the *Global Times* editorials. The study found that China adopted a mirroring strategy that followed and returned naming and shaming, a discourse strategy used by the U.S. and the West, to attack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Accordingly, first, the forced labor of Uyghurs in Xinjiang was replaced by American slave labor and the forced labor of black people. Second, there was no Xinjiang Uyghurs genocide, but instead, the editorial criticiz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U.S. and the West as a case of aboriginal Canadian genocide.

Chapter 3 investigates the case of *Global Times* editorials parodying the U.S. human rights attack strategy. First, it points out the abandonme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obligations by continuously mentioning the number of COVID-19 deaths in the U.S. Second, it attacks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in the U.S., which could not even protect the lives of people lost to gun shootings in the U.S., which does not exist in China.

Chapter 4 explores the cases of blaming discourse strategies used by the *Global Times* editorial. First, the editorial problematized hegemonic utterances by mentally confused elite politicians in the U.S. and the West. Second, it blamed the U.S. double standards for lacking legitimacy. Third, due to geopolitical desires by the U.S. and the West, they made use of the Xinjiang Uighur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us, the editorial used a blaming strategy for their wrongdoings.

In conclusion, the counter-ideology constructed by the *Global Times* editorials was persuasive in that it retaliated against U.S.-Western mirroring, parodied the U.S.-Western naming and shaming discourse strategies as they showed Chinese comparative superiority, and accused the U.S.-West of human rights devastation full of geopolitical greed.

Key Words : Xinjiang, Human Rights, Mirroring, Naming & Shaming, Parody, Blaming

■ 논문접수일 : 2021. 09. 10

■ 심사완료일 : 2021. 10. 06

■ 게재확정일 : 2021. 10. 07

